

## 사전등록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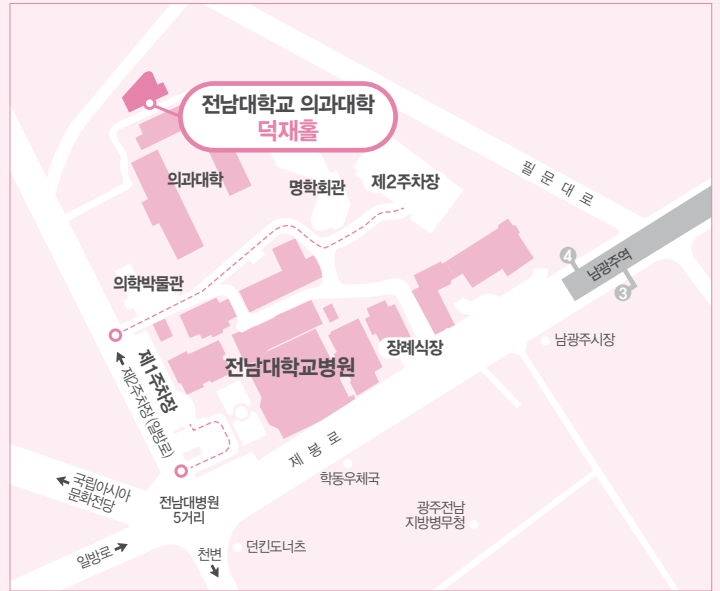
사전등록 마감일은 2019년 **10월 7일(월)** 까지 입니다.  
E-mail(ej09000@naver.com)로만 사전등록 가능합니다.  
문의 전남대학교병원 고위험산모·신생아통합치료센터 T.062-220-6398

## 사전등록 방법

성명	
소속	
병원명	
의사면허번호	
연락처	
이메일	

연수평점 3점 주차 전남대학교병원 주차장

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전남대학교병원



전남대학교병원  
**고위험산모·신생아 통합치료센터**  
High-risk Maternal and Neonatal Integrated Care Center

61469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 
Tel. 062-220-6398

High-risk Maternal and  
Neonatal Integrated  
Care Center



전남대학교병원  
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

# 고위험 산모·신생아 통합치료센터

개소 2주년 기념  
심포지엄

2019.10.12(토)  
오후 2시

전남대학교 의과대학  
덕재홀

주최 전남대학교병원 고위험 산모·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후원 보건복지부

# 모시는 글

더운 날씨와 태풍이 지나가고 어느덧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 문턱에 섰습니다. 변함없이 산모, 태아 및 신생아 진료를 위해 여념이 없는 선생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. 우리 전남대학교병원 고위험산모·신생아통합치료센터가 많은 선생님들의 기대와 격려 속에서 개소 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.

본 센터에서는 개소 2주년을 기념하여 알찬 프로그램으로 심포지움을 준비하였습니다. 고위험산모의 임상진료현장에서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. 뇌성마비의 산과적 및 신생아적 측면에 대한 강의와 흔히 접할 수 있는 선천성 질환의 산전 관리 및 분만 후 수술적 처치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. 또한 산전 스테로이드 투여의 최신지견과 전남대학교병원의 산후출혈 관리 프로토콜 (BLEED)에 대한 강의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.

이제까지 저희 전남대학교병원 고위험산모·신생아통합치료센터의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, 앞으로도 지역 내 고위험산모와 신생아 진료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바쁘시더라도 이번 개소 2주년 심포지움에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를 교류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.

2019년 9월

전남대학교병원 고위험 산모·신생아 통합치료센터장 **김윤하**

## PROGRAM

### CNUH SYMPOSIUM

###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덕재홀

14:00 -14:10

등록

14:10-14:20

인사말

센터장 **김윤하**

14:20 -14:30

축사

병원장 **이상용**

#### Session I

좌장 **신종철** 가톨릭의대 / 최상준 조선의대

14:30 -14:55

산전 스테로이드 사용의 최신지견

**이효진** 광주기독병원 산부인과

14:55 -15:20

산후출혈 환자의 관리 및 BLEED 시스템의 효율성

**김아미** 전남의대 산부인과

15:20-15:35

Discussion

#### Session II

좌장 **이필량** 울산의대 / **김영주** 이화의대

15:35 -16:00

선천성 질환의 산전 관리

**최지현** 조선의대 산부인과

16:00 -16:25

선천성 질환의 산후 수술적 처치

**이주연** 전남의대 소아외과

16:25-16:40

Discussion

16:40 -17:00

Coffee break

#### Session III

좌장 **송태복** 전남의대 / **최영륜** 전남의대

17:00 -17:25

뇌성마비(산과적 측면)

**조금준** 고려의대 산부인과

17:25 -17:50

뇌성마비(소아과적 측면)

**송은송** 전남의대 소아청소년과

17:50 -18:05

Discussion

18:05

폐회사

센터장 **김윤하**



전남대학교병원  
고위험산모·신생아 통합치료센터  
High-risk Maternal and Neonatal Integrated Care Center



보건복지부